

전일동향

전일대비 6.00원 하락한 1,429.50원에 마감

3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,424.00원(15:30 기준) 대비 13.50원 상승한 1,437.50원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엔화를 떠받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개입이 환율 하방 재료로 소화되며, 전일 대비 6.00원 하락한 1,429.50원에 증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3.6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06.32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37.50	1438.60	1425.00	1429.50	1429.90
	엔화	911.16	921.25	906.26	906.32	-
	유로화	1653.14	1671.43	1634.26	1634.26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51	-2.4	-6.51	-14.19
	결제환율(수입)	-0.09	-1.13	-4.14	-10.24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위험선호 회복에...1,42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+0.0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29.80, 15:30 기준) 대비 0.55원 하락한 1,429.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에 제한적 하락할 전망이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 대감이 유지되면서 국제유가는 5% 가량 하락했고, 미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.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선호 심리 가 유입되었고, 이는 원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금일 환율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미국과 일본 의 추가 공조로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, 원화도 이에 동조하며 환율 하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미국 제조업 호조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달러 저가 매수세는 환율 낙폭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21.00 ~ 1435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8220.2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5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53178.41, +693.38p(+1.32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05.01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10578 억원